

## 소양인 강표음 치법의 의미와 강표음약 용약법에 대한 고찰

<sup>1</sup>慶熙大學校 大醫院 韓醫學科 大學院生 · <sup>2</sup>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教授  
韓智先<sup>1</sup> · 丁彰炫<sup>2</sup> · 張祐彰<sup>2</sup> · 白裕相<sup>2\*</sup>

### A Study on the Meaning of Soyangin Gangpyoem(降表陰) Treatment and Application of Gangpyoem(降表陰) Medicine

Han Jisun<sup>1</sup> · Jeong Changhyun<sup>2</sup> · Jang Woochang<sup>2</sup> · Baik Yousang<sup>2\*</sup>

<sup>1</sup>Graduate Student at 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sup>2</sup>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Not many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mechanism of the Gangeum or Gangpyoem method which treats the Soyang Exterior Pattern, nor on which collective or individual roles the Gangeum medicinals play. Therefore in this study, four medicinals categorized as Gangpyoem which are Jingjie, Fangfeng, Qianghuo, Duhuo,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effects.

**Methods** : Content analysis based on the verses in the *Donguisusebowon*, and medicinal analysis on contents from the *Donguibogam*, *Bencaogangmu*, and *Benjingshuzheng* were carried out followed by a medicinal combination analysis using the InSA<sub>m</sub> 1.1 program.

**Results** : The four medicinals Jingjie, Fangfeng, Qianghuo, Duhuo had the common effect of normalizing the Wei qi, allowing for unobstructed Qi flow to prevent production of dampness and phlegm, which ultimately lowers Yin[降陰, gangeum] and helps to preserve the Kidney Yin Qi. Jingjie works at the highest position of the upper body; Fangfeng, the most basic medicinal of the Soyangin pattern, works mostly at the upper body although it defends the entire body from wind-dampness. Qianghuo and Duhuo are more or less similar. The difference is that Qianghuo mostly pulls Yang qi upwards while eliminating pathological byproducts, and Duhuo stabilizes the lower body that pulls Wei qi upwards.

**Conclusions** :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angpyoem of the Soyangin pattern and Wei qi,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effects of the four Gangpyoem medicinals were carried out. Further research on other major Soyangin medicinals, along with those of other constitution patterns is anticipated.

**Key words** : Gangpyoem(降表陰), Jingjie [荊芥, *Schizonepeta tenuifolia Briquet*], Fangfeng [防風, *Saposhnikovia Radix*], Qianghuo [羌活, *Ostericum Radix*], Duhuo[獨活, *Aralia Continentalis Radix*], Soyangin,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May 7, 2024), Revised(May 11, 2024), Accepted(May 11, 2024)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序論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소양인 처방의 구성을 살펴보면,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의 약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소양인 表病 처방에서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네 가지 약재가 조합을 이루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위 '형방강독'을 기존 연구에서는 소양인 表病 처방의 하나인 '降陰'과 연결지어 크게 소양인 강음 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네 가지 약재가 강음의 처방 속에서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네 가지 약재의 활용이 특히 강음 처방 가운데 강표음 처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소양인 강표음 처방의 의미와 강표음약 용약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현황

소양인 처방 및 약재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양인 약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sup>1)</sup>에서는 『동의수세보원』 갑오본과 신축본의 처방과 약재를 전체적으로 아울러 분석하였다. 갑오본에서도 신경형방패독산, 방풍통성산에서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의 네 가지 약재 조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위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형방패독산 구성 약물인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을 강표음약으로 규정하고 숙지황, 산수유, 복령, 택사, 목단피 또는 생지황, 석고, 지모는 승양하는 약물로 규정하였으나 각 약재별 역할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양인 약방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sup>2)</sup>에서는 초본권-갑오본-초판본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처방에서 어떤 약재가 빠지고 추가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

으며 “茯苓, 澤瀉, 荊芥, 防風으로 降陰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으나 역시 각 약재별 세부 분석이 이루어지는 않았다. “소양인 신경 처방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sup>3)</sup>에서는 소양인 경험방<sup>4)</sup>과 신경 처방 약재 구성을 비교하고 소양인 약재들을 강표음약, 청리열약, 보음약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본초학 교과서 분류 및 『동무유고』에 기록되어 있는 약물 효능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강표음약을 해표, 이수, 거담, 청열해독으로 세분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약재들이 강표음약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형개, 방풍, 강활, 독활, 우방자, 시호가 강표음약 중 해표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양인 신경 처방은 약재 하나하나 개별적인 약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유사 효능을 가지는 약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같은 병증의 처방들은 서로 비슷한 구성 내용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소양인 비수한표환병론의 병증 및 약리에 대한 연구”<sup>5)</sup>에서는 소양인 비수한표환병 주요 조문과 『동의보감』 및 원 출전을 비교하여 병리 해석 차이를 분석하였고, 주요 약재에 대하여 각 약재별 역대 본초서 서술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또한 소양인 비수한표환병증의 처방 구성은 음기를 하강시키는 약물을 기본전제로 하며,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은 소양인 表病證의 주요 약제로 제시하면서 체표의 한사를 몰아내고 음기를 하강시킨다고 하였다. “사상방제 구성의 분석연구”<sup>6)</sup>에서는 사심신물과 사상처방 약재를 연결지었으며, 각 약재별 사용예를 분석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해당 약재가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사상체질별 약재 분류에 관한 연구-소양인 편”<sup>7)</sup>에서는 본초학 교과서 상의 약재 분류에 따라 소양인 약재 분석하여 미분류 약재 중에서 소양인

1) 한경식, 박성식. 少陽人 藥理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 18(3). pp.38-48.

2) 배효상, 박성식. 少陽人 藥方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 14(3). pp.33-51.

3) 서용, 송정모. 少陽人 新定處方의 形成過程에 對한 考察. 사상학회지. 1997. 9(1). pp.213-243.

4)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 元明二代醫家 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を 뜻함

5) 최지수, 김경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1998. 10(2). pp.61-110.

6) 조황성.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학회지. 1995. 7(2). pp.21-44.

7) 김종열, 김경요. 四象 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 : 少陽人編.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3). pp.1-7.

약제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강음약이 해표, 이수, 청담, 청열, 重鎮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선행 논문<sup>8)</sup>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은 해표강음약에 속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는 대체로 소양인의 전체적인 처방과 약제를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형개, 방풍, 강활, 독활에 대해 논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으나, 강표음약이 함께 구성되어 나타내는 시너지 효과 및 각 약제별 차이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을 대체로 ‘강음’시키는 약제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 설정에서는 차이가 있어 강음, 강표음, 해표강표음, 해표강음 등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기타 다양한 약제를 강음약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 3. 연구 목적 및 방법

기존 연구 내용에서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을 대체로 강음약 또는 강표음약으로 규정하고 역대 본초서 및 『동무유고』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양인 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네 가지 약제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기전을 통해 강음 작용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 기전 안에서 각각의 약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강표음의 범주를 세분하지 않고,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네 가지 약제만으로 국한하여 ‘강표음약’으로 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강표음 치법의 의미를 衛氣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강표음약에 속하는 각 약제의 특성에 관련된 기존 본초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 약제가 함께 조합을 이루어 사용되었을 때 나타내는 작용 및 그 안에서의 각각의 역할 분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 약제별 분석은 『동의보감』 탕액편 및 『본초강목』, 『본경소증』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추가

적으로 『동의수세보원』, 『동무유고』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각 문헌의 원문은 한의학고전DB(<https://mediclassics.kr>)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동의수세보원』 처방 가운데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네 가지 약제가 모두 같이 쓰이지 않고 네 가지 중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조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실제 소양인 처방 내에서 약제의 쓰임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았다. 추가적으로 동의수세보원 처방 이외에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이 사용된 기존 처방을 InSAM 1.1<sup>9)</su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색을 시행하여 각 약제별 특성 및 조합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 II. 本論

### 1. 소양인 강표음 치법과 강표음약의 범위

소양인 표증은 기본적으로 열사로 인해 비국음기가 신국음기에 연결되지 못하면서<sup>10)</sup> 병증이 나타나게 되고, 비국음기를 신국음기에 연결시키는 치법이 ‘강음’이다. 양승음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하초의 음기를 갈무리시키는 것이 소양인 表病에서의 강음이며 이로써 비대신소한 소양인의 신국음기, 소양인의 보명지주인 음청지기<sup>11)</sup>를 보전시킬 수 있다.

『동의수세보원』 신축본 소양인 비수한표환병문에서 강음 치법과 관련된 조문은 상한론 소시호탕증을 설명한 부분<sup>12)</sup>, 망음증을 설명한 부분<sup>13)</sup>, 소양인 치

9) 2009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4학년 재학생들이 만든 처방 DB 프로그램으로 『東醫寶鑑』을 포함한 총 20개 의서의 총 20,604개의 처방을 수록하고 있으며, 처방 구성들 사이의 관계 및 약대의 구성과 의미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10)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고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182> : …腎局陰氣, 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신축본 9-8)

11)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고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182> : 少陰人, 以陽緩之氣, 爲保命之主, 故腎胃爲本, 而膀胱大腸爲標也. 少陽人, 以陰清之氣, 爲保命之主, 故膀胱大腸爲本, 而腎胃爲標也.(갑오구본 甲11-3)

8) 서용, 송정모. 少陽人 新定處方の 形成過程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7. 9(1). pp.213-243.

표 1. 소양인 비수한표한병 처방 약물구성

처방	소양상풍증			망음증		
	형방패독산	형방도적산	형방사백산	저령차전자탕	활석고삼탕	형방지황탕
구성 본초 (단위: 錢)	형개1	형개1	형개1	형개1	형개1	형개1
	방풍1	방풍1	방풍1	방풍1	방풍1	방풍1
	강활1	강활1	강활1	강활1	강활1	강활1
	독활1	독활1	독활1	독활1	독활1	독활1
	생지황1	생지황3	생지황3			
						숙지황2
						산수유2
	복령1		복령2	복령2	복령2	복령2
			택사2	택사2	택사2	택사2
			석고1	석고1		
			지모1	지모1		
		목통2				
		현삼1.5				
		과두인1.5				
	전호1	전호1				
	차전자1			차전자1.5		차전자1
	지골피1			저령1.5		
	시호1					
				활석2		
				고삼2		
				황련1		
				황백1		

12)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張仲景所論 少陽病 口苦咽乾 胸脇滿 或往來寒熱之證 卽 少陽人 腎局陰氣 爲熱邪所陷 而脾胃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 而凝聚 膠固因滯之病也。此證 嘔者 外寒包裏熱 而挾疾上逆也 寒熱往來者 脾胃陰氣 欲降未降 而或降故 寒熱或往或來也 口苦 咽乾 目眩 耳聾者 陰氣因滯 欲降未降 故但寒無熱 而至於耳聾也 口苦咽乾 目眩者 例證也 耳聾者 重證也 胸脇滿者 結胸之漸也 脇滿者 猶輕也 胸滿者 重證也 古人之於此證 用汗吐下三法 則其病 輒生謔語 壞證 病益危險 故仲景 變通之 而用小柴胡湯 清痰燥痰 溫冷相雜 平均和解 欲其病不轉變 而自愈 此法 以汗吐下三法 論之則可謂近善而巧矣 然 此小柴胡湯 亦非平均和解 病不轉變之藥 則從古斯今 得此病者 眞是寒心矣 耳聾胸滿 傷風之病 豈可以小柴胡湯擬之乎 噫 後來 龔信所製 荊防敗毒散 豈非少陽人 表寒病 三神山 不死藥乎 此證 清裏熱 而降表陰 則痰飲自散 而結胸之證 預防不成也 清痰而燥痰 則無益於陰降痰散 延拖結胸 將成而或別生奇證也。(신축본 9-8)

13)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亡陽者 陽不上升 而反爲下降 則亡陽也 亡陰者 陰不下降 而反爲上升 則亡陰也 陰盛格陽於上 則陽爲陰抑 不能上升於胸膈 下陷大腸 而外通膀胱 故 背表煩熱而汗出也 煩熱而汗出者 非陽盛也 此所謂內冰外炭 陽將亡之兆也 陽盛格陰於下 則陰爲陽壅 不能下降於膀胱 上逆背脊 而內通腸裡 故 腸胃畏寒而泄下也 畏寒而泄下者 非陰盛也 此所謂內炭外冰 陰將亡之兆也。(신축본 9-32)

형례 부분<sup>14)</sup> 등이다. 『동의수세보원』<sup>15)</sup> 신축본 9-8 조문은 소양상풍증에 해당하는 조문이며 9-32, 33 조문은 망음증에 해당하는 조문이다. 세 조문 모두 음기가 하강하지 못하고 있는 병리 기전을 설명하였으며, 소양상풍증에서는 특히 ‘청리열이강표음’의 치법을 사용하고 망음증에서는 ‘음기하강’의 치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양인 표증을 포괄하는 치법은 ‘강음’이며 그 중 소양상풍증에서는 보다 작은 범위의 ‘강표음’ 치법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소양인 표증 처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4)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少陰人病 一日發汗 陽氣上升 人中穴 先汗 則病必愈也 而二日三日 汗不止 病不愈 則陽不上升 而亡陽無疑也 少陽人病 一日滑利 陰氣下降 手足掌心 先汗 則病必愈也 而二日三日 泄不止 病不愈 則陰不下降 而亡陰無疑也 凡亡陽亡陰證 明知醫理者 得病前 可以預執證也 得病一二日 明白易見也 至于三日 則雖患者 執證 亦明若觀火矣 用藥 必無過二三日矣 四日 則晚矣 五日 則臨危也。(신축본 9-33)

15) 이하 『동의수세보원』의 조문 번호는 전국한의학대학교사상 의학교실 편찬의 『四象醫學』(1997)에 포함된 원문의 번호를 기준으로 하였음.

약제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표 1)로, 이 네 가지 약제는 강음 치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제이면서 특히 소양상풍증 처방인 형방패독산, 형방사백산, 형방도적산에서 교집합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의수세보원』에서도 “荊芥·防風·羌活·獨活, 俱是補陰藥”이라 하여 같은 범주에 속하는 약재로 설명하였다<sup>16)</sup>.

소양인 소양상풍증에서 ‘청리열강표음’의 치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은 강음 치법 중에서도 특히 강표음의 기능을 가진 약제이므로, 이 네 가지 약제는 주로 표 부위에 작용하여 강음의 치료 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주로 위 네 가지 약재를 강표음약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비록 보다 세분된 분류법을 사용한 연구도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네 가지 약재에 국한하여 강표음약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강표음 치법과 衛氣와의 연관성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은 강표음약으로 작용 부위가 표 부위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이 네 가지 약제는 모두 신온해표약물로서 체표를 훈훈하게 하여 한사를 물리친다고 하였다<sup>17)</sup>. 이는 곧 체표면에서의 방어 기능에 해당하는 표한진발지력<sup>18)</sup>, 즉 ‘衛氣’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본경소증』에서도 방풍과 독활을 함께 위기 정상화에 작용하는 것<sup>19)</sup>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을 활용하는 강

표음 치법의 의미에 대하여, 『동의수세보원』 내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기존 한의학 이론 가운데 衛氣와 연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소양인 表病 처방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은 조금의 방향성 차이는 있으나, ‘衛氣 순환의 정상화’라는 효과를 통하여 소양인의 전신 기기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결과 풍을 방어하며 습의 발생을 막는다. 소양인 表病에서는 이러한 衛氣 순환의 정상화를 통해 ‘강표음’에 도달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衛氣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에 사람이 지각하고 운동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하였는데<sup>20)</sup> 이는 소양상풍증에서 나타나는 구고, 인건, 목현, 이릉 등의 증상과도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도 衛氣와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다.

『내경』에서는 수곡이 위로 들어가서 그 중에 정한 것은 營氣가 되고 거친 것은 衛氣가 된다고 하였으며<sup>21)</sup>, 衛氣는 하초에서 나온다<sup>22)</sup>고 하였다. 즉, 비위를 통해 들어온 수곡을 재료로 하여 衛氣와 營氣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衛氣는 하초로 가서 하초 精氣의 영향을 받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위에서 받아들인 수곡이 하초로 가서 이를 바탕으로 위기가 생성된 후 체표까지 위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소양인의 경우 그 순환 과정 이후 체표의 음기가 수렴되어 정기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위기의 생성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 수렴되는 전체 과정을 회복시키는 것 자체를 ‘강표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양상풍증

16)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新定 少陽人病 應用 要藥 十七方. 荊防地黃湯(신축본)  
 17) 최지숙, 김경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8. 10(2). pp.61-110.  
 18)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澹然微汗出潮熱者, 表寒振發之力, 永竭, 故也, 胃竭之候也…(신축본 6-38)  
 19) 추주. 본경소증.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54> : …獨衛氣出於下焦, 而偏爲肺所主, 此其間則有故, 而獨活防風功能因可得其概矣…(본경소증 卷二 上品 防風)

20) 허준. 동의보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8> : …若陽氣一失其所則解散不行而熏充澤漑之道澁所以九竅閉塞于內肌肉壅滯于外而知覺運動視聽言嗅之靈皆失也.(동의보감 내경면 권1)  
 21) 미상. 황제내경영추.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4> : …人受氣于穀하니 穀入于胃야야 以傳與肺하면 五藏六府 皆以受氣니이다 其 淸者는 爲營하고 濁者는 爲衛하야야…(황제내경영추 營衛生會 第十八)  
 22) 미상. 황제내경영추.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4> : …營出于中焦하고 衛出于下焦니이다…(황제내경영추 營衛生會 第十八)

은 비국에서 체표면까지의 양기 발산에 문제가 발생한 초기 단계로, 衛氣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기기 순환에 막힘이 없을 때 습, 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비국에 음기가 갇히지 않으면서 신국으로 음기가 정상적으로 연결하여 정기를 정상적으로 수렴시키게 된다. 이로써 소양인에게 있어서 보명지가 되는 음청지기 즉, 음기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衛氣는 체표에서 작용할 때에 양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히 소양인의 경우 기가 수렴되어 아래로 내려와 정기로 보전되는 과정에서 음기의 특성을 띠므로 강음이라 표현하였다.

추가적으로 인체 내부와 체표 간의 기기 순환 과정에서 강표음약인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의 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표의 양기가 환기를 받으면 위축되어 발열, 오한 위주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상한' 단계이며 아직 양기 생성의 중심인 비위까지 문제를 일으킨 상태는 아니다. 이때 비위까지 영향을 미쳐 嘔 등의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는 상태가 '상풍' 단계이나, 아직 비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고 비위에서 체표까지 양기를 발산시키는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다. 이는 비국에서 생성되는 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올바른 기의 흐름, 질서가 깨진 상태 즉, 항상성이 깨지기 시작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풍 단계에서 깨진 질서를 바로잡는 처방으로 강표음약인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이 쓰이고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네 가지 약제의 공통점은 모두 풍약이라는 것이다. 신의 李東垣의 風藥 活用法에 대한 고찰<sup>23)</sup> 논문에서 따르면 강활, 독활, 방풍 등을 포함하는 풍약은 현대 본초학에서 나누는 바와 같이 단순 발산해표 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상 즉 비위병의 치료에 있어서 전신 기기를 조망하여 풍약을 활용하여 전신적인 기기 침체를 고착시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 풍약이 기여한다고 하였다. 풍약 계통의 약제들이 전체적인 기기 순환을 정상화시키고 습을 제거한다는 내용은 이후 살펴볼 본초서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3. 강표음약의 특성 분석<sup>24)</sup>

소양인 강음약 중 강표음약에 해당하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네 가지 약제에 대해 각 본초별로 주요 본초서와 의서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하여 각 약제별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의보감』 탕액편 및 『본초강목』, 『본경소증』의 내용을 참고하였는데,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허준이 집대성한 종합 의서로서 『동의수세보원』 저술 당시 이제마가 주로 참고하였으며<sup>25)</sup>, 『본초강목』은 본초 및 약리에 대하여 가장 방대하고 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요 본초서이며, 『본경소증』은 병증에 대한 자세한 기전을 설명하면서 특히 다른 본초서에 비하여 방풍과 독활에 대한 비교 분석이 상세하여 이에 연구에 참고하였다. 각 내용 중 산지, 채집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주치 및 성미 등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추가적으로 『동의수세보원』 내에 서술된 본초 특성 및 『동무유고』 중 본초 관련 일부 내용도 참고하였다.

#### 1) 형개

[동의보감 탕액편]

性溫, 味辛苦, 無毒. 治惡風賊風, 遍身瘰癧, 傷寒頭痛, 筋骨煩疼, 血勞風氣, 療癰瘡瘡瘍. 能清利頭目.

[본초강목]

主治. 寒熱鼠瘻, 癰癧生瘡, 破結聚氣, 下瘀血, 除濕疽. 本經 去邪, 除勞渴冷風, 出汗, 煮汁服之. 搗爛醋和, 敷丁腫毒. 藏器 單用治惡風賊風, 口面喎斜, 遍身痺, 心虛忘事, 益力添精, 辟邪毒氣, 通利血脈, 傳送五臟不足氣, 助脾胃. 甄權 主血勞, 風氣壅滿, 背脊疼痛, 虛汗, 理丈夫脚氣, 筋骨煩疼, 及陰陽毒傷寒頭痛, 頭旋目眩, 手足筋急. 士良... 治婦人血風及瘡疥, 爲要藥. 蘇頌. 產後中風身強直, 研末酒服. 孟詵. 散風熱, 清頭目, 利咽喉, 消瘡腫, 治項強, 目中黑花, 及生瘡陰

24) 한의학고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

25) 박수현, 정창현, 백유상, 장우창.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에 적용할 수 있는 方法論에 관한 考察(1).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1). pp117-139.

23) 신상원. 李東垣의 風藥 活用法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31(4). 2018. pp1-16.

癩, 吐血衄血, 下血血痢, 崩中痔漏, 時珍.

發明. 元素曰荊芥辛苦, 氣味俱薄, 浮而升, 陽也. 時珍曰荊芥入足厥陰經氣分, 其功長於祛風邪, 散瘀血, 破結氣, 消瘡毒. 蓋厥陰乃風木也, 主血, 而相火寄之, 故風病血病瘡病爲要藥. 其治風也, 賈丞相稱爲再生丹, 許學士謂有神聖功, 戴院使許爲產後要藥, 蕭存敬呼爲一捻金, 陳無擇隱爲舉卿古拜散, 夫豈無故而得此隆譽哉? 按《唐韻》荊字舉卿切, 芥字古拜切. 蓋二字之反切, 隱語以秘其方也.

[본경소증] -

[동의수세보원] 荊芥·防風·羌活·獨活, 俱是補陰藥. 荊防, 大清胃腸散風.

[동무유고] -

형개는 가장 質이 가벼워 청리두목하는 효능이 있으며 주로 체표, 상부 쪽에서 작용하는 약재이다. 죽결음간경의 기분으로 들어가 뭉친 기를 깨뜨리는 성질을 바탕으로 풍, 혈,瘡까지 치료 범위를 포괄한다. 형개는 상초부 위주로 소양인 기기 순환에 막힘이 없도록 하여 大清胃腸散風하고 위기 방어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sup>26)27)</sup>.

## 2) 방풍

[동의보감 탕역편]

性溫, 味甘辛, 無毒. 治三十六般風, 通利五藏關脉, 風頭眩, 痛風, 赤眼出淚, 周身骨節疼痛. 止盜汗, 安神, 定志. 足陽明·足太陰之行經藥也. 足太陽本經藥也. 治風通用, 頭去身半以上風邪, 梢去身半以下風邪. 《湯液》除上焦風邪之仙藥也. 《入門》

[본초강목]

釋名. 時珍曰防者, 御也. 其功療風最要, 故名. 屏風者, 防風隱語也. 曰芸·曰茴·曰藎者, 其花如茴香, 其氣如芸蒿·藎蘭也.

26) 조형성.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의학회지. 1995. 7(2). p.34. : 상초의 풍습을 제거하는 활용 이외에 脾의 음기가 하강하도록 강습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나 자세한 설명은 부족하다.

27) 최지숙, 김경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8. 10(2). p.75. : 체표의 풍한사를 몰아냄으로써 흉격부에 울체된 기운을 맑혀주며 음기가 정상적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氣味. 甘, 溫, 無毒. 元素曰: 味辛而甘, 氣溫, 氣味俱薄, 浮而升, 陽也. 手足太陽經之本藥. 好古曰又行足陽明·太陰二經, 爲肝經氣分藥.

主治. 大風, 頭眩痛惡風, 風邪目盲無所見, 風行周身, 骨節疼痛, 煩滿. 久服輕身. 本經. 脊痛風, 頭面去來, 四肢攣急, 字乳金瘡內瘰. 別錄. 治三十六般風, 男子一切勞劣, 補中益神, 風赤眼, 止冷淚及癱瘓, 通利五藏關脉, 五勞七傷, 羸損盜汗, 心煩體重, 能安神定志, 勻氣脈. 大明. 治上焦風邪, 瀉肺實, 散頭目中滯氣, 經絡中留濕, 主上部見血. 元素 搜肝氣. 好古.

發明. 元素曰防風, 治風通用. 身半以上風邪用身, 身半以下風邪用梢, 治風去濕之仙藥也. 風能勝濕故爾. 能瀉肺實, 誤服瀉人上焦元氣. 杲曰防風治一身盡痛, 乃狎伍卑賤之職, 隨所引而至, 乃風藥中潤劑也... 凡瘡在胸膈以上, 雖無手足太陽證, 亦當用之, 爲能散結, 去上部風. 病患身體拘倦者, 風也, 諸瘡見此證, 亦須用之.

[본경소증]

神農本草經 : 防風, 味甘. 主大風, 頭眩痛, 惡風, 風邪目盲無所見, 風行周身骨節疼痛, 煩滿. 久服輕身.

名醫別錄 : 辛溫, 無毒. 脊痛, 脇風, 頭面去來, 四肢攣急, 字乳金瘡, 內瘰.

獨活能治風, 然其所治之風, 是濕化風, 本於陰者也, 防風亦能治濕, 然其所治之濕是風化濕, 本於陽者也. 獨活暢陰以達陽, 防風散陽以畜陰. 暢陰以達陽者, 俾陽出陰中以上際, 其升之機藉於肝. 散陽以畜陰者, 俾陽依陰中以下蟠, 其降之機舉在肺, 故曰金木者生成之終始, 是獨活之用在於肝, 防風之用在於肺, 不可胥於是見耶. 獨衛氣出於下焦, 而偏爲肺所主, 此其間則有故, 而獨活防風功能因可得其概矣...

...風寒所擊金瘡泄其一處諸處護衛皆疏也, 濬其源, 使來者自盛, 則護衛仍密矣. 故其功係之獨活. 風行周身, 骨節疼痛煩滿, 諸處皆有阻, 非一處之病也, 若更濬其源, 使來者益甚, 不更慮其阻亦益甚耶. 故必導其流使之暢行無阻, 其功不得不屬防風矣.

[동의수세보원] 荊芥·防風·羌活·獨活, 俱是補陰藥. 荊防, 大清胃腸散風

[동무유고] 解腎氣之表邪

방풍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풍약의 대표적 약이며, 풍을 치료하는 가장 주요한 약제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풍에 작용하고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형개보다는 작용 범위가 깊고 넓으나 방풍 역시 상초에 주로 작용하는 약으로 설명하고 있다. 방풍은 『본경소증』에서 이미 흠어있는 양을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sup>28)</sup>, 衛氣가 체표에서 막힘없이 운행하고 난 후 다시 수렴하는 것을 도와주는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sup>29)30)</sup>.

### 3) 강활

[동의보감 탕액편]

性微溫, 味苦辛, 無毒. 主治, 與獨活大同小異. 《本草》羌活, 乃手足太陽·足厥陰少陰, 表裏引經之藥也. **撥亂反正之主**, 大無不通, 小無不入. 故一身百節痛, 非此不能治. 《入門》羌活**氣雄**, 故入**足太陽**, 獨活**氣細**, 故入**足少陰**. 俱是治**風**, 而有表裏之殊. 《湯液》

[본초강목] - (독활에 포함)

[본경소증] -

[동의수세보원] 荊芥·防風·羌活·獨活, 俱是補陰藥. 羌獨, 大補膀胱眞陰.

[동무유고] 解腎氣之表邪羌活優力

대부분의 자료에서 강활과 독활은 그 작용이 서로 비슷하면서 일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독활에 대한 자료 분석 부분에서 같이 다루고자 한다.

### 4) 독활

[동의보감 탕액편]

28) 추주. 본경소증.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54> : 防風散陽以畜陰(본경소증 卷二 上品 羌活)

29) 조황성.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의학회지. 1995. 7(2). p.34. : 『동무유고』에서 腎의 表邪를 해소한다고 한 것 이외에 裏病에서 강음하거나 상초열을 제거하거나 소갈병에서 청양을 상승시키는 데에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30) 최지숙, 김경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8. 10(2). p.76. : 신은한 성미로 체부에 울체된 풍한사를 제거함으로써 증상초의 기운을 맑히고 습기가 하강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性平一云微溫, 味甘苦一云辛, 無毒. **療諸賊風**, 百節痛風, 無久新者. 治中風失音, 喎斜癱瘓, 遍身痺痺, 及筋骨攣痛. 此草得風不搖, 無風自動, 故一名獨搖草. 《本草》一莖直上, 得風不搖, 故曰獨活, 乃足少陰行經藥也. 獨活氣細, 羌活氣雄. 《入門》**療風宜用獨活, 兼水宜用羌活**. 今人以紫色節密者爲羌活, 黃色而作塊者爲獨活. 《本草》獨活氣細而色白, 治足少陰伏風. 故兩足寒濕痺不能動, 非此不除. 《湯液》

[본초강목]

氣味. 苦·甘, 平, 無毒. 《別錄》曰微溫. 權曰苦·辛. 元素曰獨活微溫, 甘·苦·辛, 氣味俱薄, 浮而升, 陽也, 足少陰行經氣分之藥. 羌活性溫, 辛苦, 氣味俱薄, **浮而升, 陽也**, 手足太陽行經風藥, 並入足厥陰·少陰經氣分.

主治. **風寒所擊**, 金瘡止痛, 奔豚癰瘕, 女子疝瘕. 久服輕身耐老. 本經 療諸賊風, 百節痛風, 無間久新. 別錄. 獨活治諸中**風濕冷**, 奔喘逆氣, 皮膚苦痒, 手足攣痛勞損, **風毒齒痛**. 羌活治賊**風失音不語**, 多痒, 手足不遂, 口面喎斜, 遍身痺痺·血癩. 甄權. 羌·獨活治一切**風並氣**, 筋骨攣拳, 骨節酸疼, 頭旋目赤疼痛, 五勞七傷, 利五臟及伏梁水氣. 大明. 治**風寒濕痺**, 酸痛不仁, 諸**風掉眩**, 頸項難伸. 李杲. 去腎間**風邪**, 搜肝**風**, 瀉肝氣, 治項強·腰脊痛. 好古 散癰疽敗血. 元素.

發明. 張元素曰**風能勝濕, 故羌活能治水濕**. 獨活與細辛同用, 治少陰頭痛. 頭運目眩, 非此不能除. 羌活與川芎同用, 治太陽·少陰頭痛, 透關節, 治督脈爲病, 脊強而厥. 時珍曰**羌活·獨活皆能逐風勝濕**, 透關節, 但氣有剛劣不同爾. 《素問》云, 從下上者, 引而去之. 二味苦辛而溫, 味之薄者, 陰中之陽, **故能引氣上升, 通達周身, 而散風勝濕**.

[본경소증]

神農本草經 : 獨活, 味苦甘, 平. 主風寒所擊, 金瘡, 止痛, 賁豚, 癰瘕, 音熾, 女子疝瘕. 久服輕身耐老.

名醫別錄 : 微溫無毒. 療諸賊風, 百節痛風, 無久新者

[동의수세보원] 荊芥·防風·羌活·獨活, 俱是補陰藥. 羌獨, 大補膀胱眞陰.

[동무유고] -



강활과 독활은 그 효능이 대동소이하여 모두 풍을 치료하는데, 특히 관절통과 연관되어 고착된 습을 치료하는 효능을 보인다. 강활과 독활은 형개와 방풍에 비해 족소음경과 연관되어 보다 하초까지 작용한다. 강활은 주로 족태양과 연관되어 보다 양에 가깝고 독활이 주로 족소음과 연관되어 보다 음에 가까워 서로 표리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독활은 음기가 펼쳐지게 하고 양기가 곳곳에 도달하게 한다고 하였는데<sup>31)</sup>, 衛氣가 하초에서부터 수곡 및 오장의 영향을 받아서 충분히 그리고 원활하게 밖으로 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함을 의미한다. 독활과 강활을 비교해 보면 독활이 보다 음에 가깝기 때문에 독활은 음분으로 들어가서 양기를 끌어올리는 기를 바로잡고 정상화시키는 쪽에 가깝고, 강활은 양에 가깝기 때문에 위기가 생성된 이후 끌어올려주는 작용에 보다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2)33)</sup>.

위 네 가지 약재의 공통점은 모두 풍과 습을 치료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표의 위기 정상화 과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단, 그 방향성 및 작용 위치에 차이가 있어 형개, 방풍, 강활, 독활로 갈수록 그 작용 부위가 상초에서부터 하초로 깊어진다. 독활은 가장 깊은 하초 부위에서 위기가 잘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를 바로잡는 작용을 하며, 강활은 생성된 위기를 체표까지 끌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형개는 위기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인체 최상부 및 말초 부위까지 기기 순환을 퇴위시키는 역할을 하며, 방풍은 체표부까지 올라온 위기가 정상적

으로 방어 기능을 하도록 하는 주요한 약이면서 위기가 정상 작동 후 원활히 수렴되도록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약재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위기의 생성부터 수렴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바로잡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로써 비국에서 체표로 뺀어나가는 표한진발지력, 즉 위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비국에서 신국으로 음기가 하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여 소양인 기기 순환을 정상화시키고 습, 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비국과 신국의 음기를 연결시켜 강표음이 이루어진다.

#### 4. 소양인 처방 중 강표음약 활용 분석

소양인 처방 내에서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이 한꺼번에 쓰이지 않는 처방들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개별 약재들의 쓰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양인 비수환표한병 본문 내에 언급된 대표적 처방인 형방패독산, 형방도적산, 형방사백산, 저령차전자탕, 활석고삼탕, 형방지황탕 등은 강표음하는 약재인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이 모두 같이 쓰이고 있는데, 表病 처방 중에서도 황련정장탕이나 목통대안탕에서는 네 가지 약재가 모두 쓰이고 있지 않다. 소양인 裏病 처방에서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 가운데 2가지 정도의 약재만 쓰이거나 4가지 모두 전혀 쓰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네 가지 약재가 모두 쓰이는 처방들이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초기 表病에서 위기의 정상화를 통해 표한진발지력을 회복하고 전신 기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에 비하여, 네 가지가 동시에 쓰이지 않는 처방들은 위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다른 병증의 치료를 목표로 하여 각각 개별 약재의 특성에 집중하여 처방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양인 전 처방에서 위 네 가지 약재는 몇 가지 조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1돈 용량이 사용되었다.

형개, 방풍, 강활, 독활 4가지 약재가 모두 함께 쓰이고 있지 않은 처방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表病 처방에서는 독활을 사용하지 않고 강활만 사용한 경향성이 보이며, 裏病 처방에서는 형개, 방풍만 사용하거나 방풍, 독활만 사용하거나 네 가지

31) 추주. 본경소증.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54> : 獨活暢陰以達陽本經소증 卷二 上品 방풍)  
 32) 조황성.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의학회지. 1995. 7(2). p.35. : 독활은腎의 음기가 손상된 심한 병증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강활을 裏病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음기를 손상시킬 우려 때문이라 하였다.  
 33) 최지숙, 김경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8. 10(2). pp.72-74. : 강활이 길을 혼 혼하게 하여 寒邪를 몰리치며 동시에 표에 응체된 음기를 하강시킨다고 보았다. 독활에 대해서는 表病에서 음기를 하강시켜 兩足痺濕, 부종 등을 치료하며, 방광의 眞陰을 大補하지만 숙지황, 산수유처럼 순수하게 腎陰을 보하는 약은 아니라고 보았다.

표 2. 형개, 방풍, 강활, 독활 4가지 약재가 모두 함께 쓰이고 있지 않은 처방

		형개	방풍	강활	독활
표병	황련청장탕		○	○	
	목통대안탕	○	○	○	
이병	지황백호탕		○		○
	양독백호탕	○	○		
	양격산화탕	○	○		
	인동등지골피탕	○	○		
	속지황고삼탕				
	독활지황탕		○		○
	십이미지황탕	○	○		

약재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네 가지 약재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속지황고삼탕을 제외하고 방풍은 모두 사용이 되고 있다. 방풍은 소양인 처방에서 쓰이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소양인 약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약재라고 할 수 있겠다.

황련청장탕은 이질<sup>34)</sup>, 목통대안탕은 부중<sup>35)</sup>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두 처방은 공통적으로 목통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중, 결흉, 이질 등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증상<sup>36)</sup>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형방도적산에서 파생되어 나온 처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황련청장탕과 목통대안탕은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이 모두 사용되지는 않아서 이미 위기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표증 단계는 어느 정도 지나 고착화된 裏證 단계로 들어선 상태로 볼 수 있다. 부중과 이질은 둘 다 위급한 증세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형질화된 병리적 산물-부중은 과다한 수습, 이질은 고름-이 보이는 상태로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활보다 향과 기세가 강하여

두루 크게 통하게 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sup>37)</sup> 강활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히 강활은 물을 동반하는 병증<sup>38)</sup>에 사용한다고 한 점에서도 형질화된 병리적 산물이 보이는 부중, 이질과 같은 병증에 좀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위급증에서 빠르게 병리적 산물을 제거하고 회복시킬 때에는 독활을 사용하지 않고 강활만을 사용하였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중 荊防地黃湯의 가감을 설명하면서 “荊防, 大清胸膈散風, 羌獨, 大補膀胱眞陰.”이라 언급하고 있다. 소양인 裏病에서는 “上消中消, 裏陽升氣, 雖則虛損, 表陰降氣, 猶待完壯故.”라고 하여 상소, 중소에서는 表陰降氣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표증의 위기의 작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상소, 중소에 사용하는 양격산화탕과 인동등지골피탕 등에서 형개와 방풍만 사용하는 것은 大清胸膈散風의 작용에 집중하여 흉격부의 열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외 또 형개와 방풍 두 가지 약재가 사용된 양독백호탕은 양격산화탕과 동일한 단계에서 언급이 되는 것으로 보아<sup>39)</sup> 흉격부의 열이 심화되면서 전후풍,

34)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少陽人 痢疾 宜用黃連清腸湯.(신속본11-13)

35)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浮腫初發 當用木通大安湯…(신속본11-8)

36)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少陽人病 …浮腫喘促 結胸 痢疾 寒熱往來胸脇滿 五證 同出一屬 而自有輕重.(신속본11-1)

37) 허준. 동의보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8>

: …撥亂反正之主, 大無不通, 小無不入...(동의보감 탕액편 초부 강활)

38) 허준. 동의보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8>

: 兼水宜用羌活.(동의보감 탕액편 초부 강활)

39)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少陽人 內發咽喉 外

순증, 陽毒發斑<sup>40</sup>)과 같이 표부위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역시 흥격-상초부의 증상을 해소한다. 십이미지황탕은 증소증에 사용하는 처방인 인동등지골피탕과 처방 구성이 유사한 점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리양승기는 허손하나 표음강기는 완강한 증소의 상태에서 표음강기까지 손상을 받아 표리가 모두 허손해질 때 십이미지황탕이 사용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하초를 보강하는 것보다는 흥격부의 열을 해소하는 데에 십이미지황탕이 좀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황백호탕은 망음증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정기가 손상되어 섬어, 번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사용하고, 독활지황탕은 표리의 음양이 모두 허<sup>41</sup>)해진 상태에서 사용하는 처방이다. 모두 정기가 크게 손상된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 가운데 가장 하초의 음 부위에 작용하는 독활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하초에서부터 생성되는 양기의 기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다.

정리해 보면 방풍은 소양인의 거의 모든 처방에 사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약재이며, 형개는 흥격부, 상초부 위주의 풍열을 해소하는 작용 위주로 사용되며, 강활은 습열에서 과생된 병리적 산물을 급하게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독활은 정기가 크게 허손된 상태에서 하초부의 기틀을 바로잡는 작용 위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 5. 동의수세보원 이외 처방 중 강표음 약 활용 분석

腫項類者 謂之纏喉風 二三日內 殺人最急...此二證 始發而輕者 當用涼膈散火湯 陽毒白虎湯...<sup>(동의수세보원 신축본 11-15)</sup>

40)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 陽毒白虎湯. ...治陽毒發斑 便秘者 宜用.(신축본)

41)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若夫陰虛午熱 飲水背寒而嘔者 表裡陰陽 俱爲虛損 ... 此證 當用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신축본 10-28)

처방 및 본초 검색 프로그램인 InSAM 1.1을 이용하여 역대 처방 가운데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이 사용된 처방에 대해 검색한 결과는 부록의 표 1과 같다. 강표음약 사용 시 조합의 구성을 바탕으로 각 약물 가감의 활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약제별 용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할 때 주로 『동의보감』을 참고하였는데<sup>42</sup>), 『동의보감』 처방으로 조사 범위를 좁혀 검색한 결과는 부록의 표 2와 같으며, 그 가운데에는 『동의수세보원』 형방패독산의 모태가 된 공신의 형방패독산 처방도 포함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이 모두 사용된 처방을 살펴보면, 風, 癩疫, 癰疽, 皮, 眼, 牙齒門에서 사용되어<sup>43</sup>) 풍습열과 관련된 병증 및 두면사지 등의 말초 부위에 나타나는 병증을 치료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네 가지 약재의 조합은 위기의 정상화를 통해 체표 부위의 방어력 즉 표한진발지력을 유지시키고 풍을 방어하여 습열이 생기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기 순환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담의 발생을 막고 각종 병리 산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외감풍열 이외에 중풍과 같은 질환 치료에도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의 조합으로 처방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풍열이 강한 상황에서 위기의 지각 기능에 문제가 생겨 정신이 혼미해질 때 거풍지보단을 사용하거나 외부 사기로 인한 구안와사에 이기거풍산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동의보감』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소양인 表病 처방을 각종 통증 및 피부, 안질환,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까지 그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동의보감』 처방 중 형개, 방풍, 강활, 독활 중 3 가지 조합으로 쓰인 처방을 InSAM 1.1로 검색한 결과는 부록의 표 3, 4, 5, 6과 같다. 형개, 방풍, 강활의 조합 및 방풍, 강활, 독활의 조합이 다른 조합에 비해 다양한 처방이 검색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네 가지 약재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 순서대로 상초에서부터 하초까지 작용 부위가 점

42) 박수현, 정창현, 백유상, 장우창.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에 적용할 수 있는 方法論에 관한 考察(1).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1). pp117-139.

43) 소아문의 가미패독산은 형방패독산의 가미방임.

차 깊어지는데, 작용 방향성이 가까운 조합끼리 구성된 처방이 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개, 방풍, 강활의 조합은 頭門, 眼門과 같이 인체 상부와 관련된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 많고, 방풍, 강활, 독활의 조합은 胞門, 火門, 內傷門, 嘔吐門 등 좀 더 하초 부위 및 내상병 관련 치료와 연관된 처방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風, 癰疽와 같은 병증 치료에 위 약제들의 조합이 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 Ⅲ. 考察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네 가지 약제는 소양인 처방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빈용된 약제들이며 특히 소양인 表病에서는 이 네 가지 약제가 하나의 조합으로 대부분 함께 사용되고 있어 위 네 가지 약제는 소양인 치료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약제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동의수세보원』 내에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그 행간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 네 가지 약제를 ‘강표음약’으로 분류하고 각 약제별 역대 본초서 내용을 정리한 논문도 다수 있었으나, ‘강음’의 기전과 연관된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의 개별 및 공동 작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흡하였다.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은 소양상풍증에서만 공통된 교집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인데, 소양상풍증의 치법은 ‘청리열강표음’이므로 이 네 가지 약제가 ‘강표음약’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은 해표약이면서 풍약으로서 체표에서 위기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위기의 정상화 결과 소양인 전신 기기 흐름이 막힘이 없게 되면서 습, 담이 발생하지 않고 비국에서 음기가 막히지 않고 강음이 이루어져 비국과 신국의 음기가 연결하여 하초 음기를 갈무리하고 소양인의 음청지기를 보진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을 강표음약으로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어떠한 기전을 통해 강음이라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 네 가지 약제의 효능을 ‘위기’와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형개는 가장 가벼운 약제로서 인체 최상부 및 말초 부위까지 기기 순환에 막힘이 없도록 하고, 방풍은 가장 주요한 풍약으로서 衛氣가 정상적으로 방어 작용을 수행 후 원활하게 수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강활은 생성된 위기를 체표까지 끌어 올려주는 작용을 하며, 독활은 하초에서 위기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기를 잡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약제는 모두 공통적으로 위기 정상화에 기여하나 그 작용 부위가 형개, 방풍, 강활, 독활로 갈수록 상초에서부터 하초로 깊어져 작용 부위 및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위기는 수곡을 바탕으로 생성되나 하초 정기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후 체표 부위에서 전신을 순환하는데 이러한 위기의 생성 및 순환 그리고 수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환에서 위 네 가지 약제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합을 이루어 위기 작용의 정상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기존 한의학 이론에서 衛氣의 정상 작동과 음기를 하강시키는 것과의 관계는, 衛氣를 주관하는 ‘폐’의 기능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폐는 선발 작용과 숙강 작용 두 가지 작용을 모두 주관하며, 선발 작용이 잘 안되면 숙강 작용도 잘 되지 않는다. 폐는 선발 작용으로 기의 전신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숙강 작용으로 정기를 갈무리하여 하초로 끌고 내려오는 작용을 한다. 만약 풍 등의 요인으로 인해 폐 기능이 교란되고 衛氣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선발 및 숙강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를 하초로 갈무리하여 끌고 내려오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폐는 肺朝百脈하고 通調水道한다고 하였는데, 폐의 통조수도 작용의 결과 下輸膀胱<sup>44)</sup>하여 진액이 방광에 모이고, 폐의 작용으로 하초 진액, 음기가 생성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폐

44) 미상. 황제내경소문. 한의학고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62> : 經脈別論篇 第二十一

의 선발 작용으로 衛氣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폐의 수렴, 숙강 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물의 흐름에 막힘이 없게 되면서 하초 방광에 음기, 진액이 갈무리되게 된다. 이러한 폐의 선발, 숙강 작용이 衛氣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전신 기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습 혹은 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음이 정상적으로 하강하므로 소양인 강표음 치법과 관련이 있다. 선발, 숙강 작용을 간략하게 약제와 연결시켜 본다면 선발 작용은 독활, 숙강작용은 방풍과도 연관이 될 수 있으나, 방풍이 주로 상초에 작용하며 대청홍격산풍<sup>45)</sup> 작용을 하고, 『본경소중』에서도 방풍과 폐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것<sup>46)</sup>으로 보아 이러한 폐 기능의 정상화는 방풍과 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소양인 처방 내에서 형개, 방풍, 강활, 독활 등의 활용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동의수세보원』 소양인 表病부터 裏病까지 네 가지 약제가 모두 함께 쓰이고 있지 않은 처방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형개는 홍격부, 상초부 위주의 풍열을 해소하는 작용 위주로 사용되어 기존 살펴본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며, 방풍은 소양인의 거의 모든 처방에 사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약제로 방풍이 풍약 중에서도 要藥이라는 것에도 통한다. 강활과 독활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설명한 본초서가 많은데, 『동의수세보원』에서의 용법을 살펴보면 강활은 습열에서 파생된 병리적 산물을 급하게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독활은 정기가 크게 허손된 상태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네 가지 강표음약이 가지는 특성 및 조합에 대한 추가 검토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기존 처방 중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의 조합이 사용된 예를 분석해 보았다. 이제마는 이 중 형방폐독산만 『동의수세보원』에서 인용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외에도 형

개, 방풍, 강활, 독활이 포함된 다양한 처방이 존재하였으며, 風, 癩疫, 癰疽, 皮, 眼, 牙齒門 등에서 주로 풍습열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형개, 방풍, 강활 등의 조합, 방풍, 강활, 독활 등의 조합과 같이 인체 내 작용 부위가 비슷한 약제끼리의 조합이 다른 조합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위 조합 중 전자는 인체 상부인 頭, 眼의 치료와 관련된 처방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후자는 胞, 火, 內傷, 嘔吐 등 보다 하초 및 내상 치료와 관련된 처방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양인 처방에 사용된 약제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그 중 소양인 치법인 강음과 관련하여 각 개별적인 약제가 나타내는 효능 및 용약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에서 강표음약과 위기와 연관성을 밝히고, 강표음약에 속하는 형개, 방풍, 강활, 독활 각 약제별 치료 방향성에 대한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소양인 강표음 치법과 강표음약 용약법의 지평을 넓힌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외 소양인의 주요 약제인 복령, 택사, 생지황, 숙지황, 석고, 지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다른 체질의 용약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앞으로 더욱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IV. 結論

1. 소양인 表病 전체를 포괄하는 치법은 ‘강음’이며, 그 중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은 소양상풍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므로, ‘청리열강표음’하는 ‘강표음’ 치법에 활용하는 ‘강표음약’에 해당한다.
2. 강표음약인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은 衛氣를 정상화시켜 기기 순환에 막힘이 없게 함으로써 습, 담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며, 이로써 비국에서 음기가 막히지 않고 강음이 이루어져 비국과 신국의 음기가 연결할 수 있게 한다.
3. 형개는 인체 최상부 및 말초 부위까지 기기 순환에 막힘이 없게 하고, 방풍은 가장 주요한 풍약으로서 위기가 정상적으로 방어 작용을 수행한 후 원활하게 수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

45)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82> : 新定 少陽人病 應用 要藥 十七方. 荊防地黃湯. …荊防, 大清胸膈散風(신축본)

46) 추주. 본경소중.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classics.kr/books/154> : 防風之用在肺(본경소중 卷二 上品 방풍)

- 며, 강활은 생성된 위기를 체표까지 끌어 올려 주는 작용을 하고, 독활은 하초에서 衛氣가 올라가는 기를 바로잡고 정상화시켜 위기 생성과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4. 특히 강표음약인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은 함께 조합을 이루어 상초에서부터 하초까지 각 부위에 작용함에 따라 위기의 생성, 순환 및 수렴의 전체 단계에 걸쳐서 정상화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5. 소양인 처방 내에서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의 세부적인 쓰임을 분석해 본 결과, 방풍은 소양인의 모든 처방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약재이며, 형개는 흉격부, 상초부 위주의 풍열을 해소하는 작용 위주로 사용되며, 강활은 습열에서 파생된 병리적 산물을 급하게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독활은 정기가 크게 허손된 상태에서 하초부의 기를 바로잡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6. 기존 역대 처방 가운데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이 사용된 주요 처방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풍열습 관련 치료 위주로 사용되었으며 작용 방향성이 가까운 조합끼리 구성된 처방이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6.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1997.
  7. 조항성.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의학회지. 1995. 7(2).
  8. 최지숙, 김경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病證 및 藥理에 대한 研究. 사상의학회지. 1998. 10(2).
  9. 한경석, 박성식. 少陽人 藥理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甲午本"과 "辛丑本"을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 18(3).
  10. 미상. 황제내경소문.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162>
  11. 미상. 황제내경영추.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184>
  12.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182>
  13. 추주. 본경소증.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154>
  14. 허준. 동의보감. 한의학교전DB. [cited at 10 April, 2024]: Available from: <https://mediclassics.kr/books/8>

## Reference

1. 김종열, 김경요. 四象 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 : 少陽人編.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3).
2. 박수현, 정창현, 백유상, 장우창. 東醫壽世保元 引用文 研究에 적용할 수 있는 方法論에 관한 考察(1).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1).
3. 배효상, 박성식. 少陽人 藥方의 形成過程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 14(3).
4. 서웅, 송정모. 少陽人 新定處方의 形成過程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7. 9(1).
5. 신상원. 李東垣의 風藥 活用法에 대한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31(4). 2018.

[부록]  
 표 1. 역대 처방 가운데 형개, 방풍, 강활, 독활이 사용된 처방

거풍지보단	동의원보감	감소	강활	길경	단귀	대항	독활	마황	망초	비하	방풍	백작약	백출	석고	세신	숙지황	연고	인삼	전갈	천궁	천마	치자	형개	활석	황금	황련	행백							
이기피공산	동의원보감	감소	강활	길경	남성	독활	번하	방풍	백작약	백지	오약	방풍	백작약	백지	오약	방풍	백작약	형개	형개															
영선제통음	동의원보감	감소	강활	길경	단귀	독활	마황	방풍	망초	비하	방풍	백작약	백지	우령선	적작약	지실	창출	황금																
형방파독산	동의원보감	감소	강활	길경	독활	방풍	시호	인삼	적복령	전호	지각	전고	형개																					
가미패독산	동의원보감	감소	강활	길경	단귀	대조	독활	번하	방풍	백출	생지황	시호	인삼	적복령	적작약	진호	세신	오약	창출	천궁	형개													
태상공복은단	동의원보감	감소	강활	길경	단귀	계피	고본	단귀	독활	마황	방풍	백작약	백지	배출	시향	삼내	진호	오약	지초	조각자	창출	천마	전오	조오	향부자	형개	황련							
연교패독산	동의원보감	감소	강활	금오화	길경	독활	번하	방풍	생강	시호	연고	적복령	전호	지각	천궁	형개																		
자은풍환	동의원보감	감활	고삼	단귀	독활	방풍	방풍	백강잠	백지	생지황	선태	오기피	우무자	적작약	전갈	창출	하수오	형개																
가미패독산	동의원보감	감활	길경	독활	마황	번하	방풍	생강	선태	시호	지소연	지각	지골피	천궁	전마	종백	형개																	
청기산	동의원보감	감조	강활	길경	독활	번하	방풍	생강	선태	시호	인삼	적복령	전호	지각	천궁	형개																		
통상신기감법	동의원보감	감조	강활	결명자	국화	길경	길경	단귀	독활	마황	만행자	목적	비하	범홍	백질리	배출	생강	석고	선태	세신	연고	적작약	천궁	치자	현상	형개	황금							
독활산	동의원보감	강활	독활	번하	방풍	생지황	세신	천궁	형개																									
가검패독산	방약합편	감조	강활	길경	독활	번하	방풍	백복령	생강	시호	연고	인삼	전호	지각	천궁	형개																		
소풍산	방약합편	강활	남성	독활	번하	방풍	세신	천궁	천마	형개																								
신정패독산	방약합편	강활	독활	방풍	생지황	시호	적복령	전호	지골피	천자	형개																							
이십사미패독산	방약합편	강활	길경	단귀	독활	망초	국화	방풍	백강잠	백지	방풍	백강잠	백지	생지황	숙지황	연고	우슬	의이인	인동등	지모	진피	천궁	치자	형개	황련	행백								
창기산	방약합편	감조	강활	길경	독활	번하	방풍	생강	선태	시호	인삼	적복령	전호	지각	천궁	천마	형개																	
형방지황탕	방약합편	강활	독활	방풍	백복령	신수유	숙지황	차전자	태사	형개																								
유풍단	의학임문	감조	단귀	번하	강활	국화	길경	단귀	대항	독활	마황	망초	비하	방풍	백작약	백지	배출	생강	석고	세신	숙지황	연고	적작약	천궁	천마	치자	허수오	형개	황금	황련	행백			
금조단	의학임문	강활	고본	단귀	독활	만형자	목적	방풍	물약	방풍	백강잠	백지	배출	세신	양두령	옹황	유령선	유향	전갈	창출	천궁	천마	천오	조오	하수오	형개	황금	황련	행백					
마황적직탕	의학임문	강활	고본	강활	단귀	강활	단귀	대항	마황	방풍	망초	비하	방풍	백강잠	백지	배출	생강	석고	세신	숙지황	연고	적작약	천궁	천마	천오	조오	하수오	형개	황금	황련	행백			
신풍단	의학임문	강활	남성	독활	방풍	세신	시호	인삼	천궁	천마	형개																							
대고삼환	의학임문	강활	고삼	독활	만형자	방풍	배부자	방풍	배부자	백지	백질리	복령	산약	아조	적작약	천궁	천오	조오	치자	하수오	형개	황기												
자은풍환	의학임문	강활	고삼	단귀	독활	번하	방풍	백강잠	백지	생지황	선태	세신	오기피	우무자	적작약	적약	창출	하수오	형개															
대풍환	의학임문	강활	고삼	단귀	대풍사	독활	번하	방풍	선태	전갈	형개																							
효능장육고	의학임문	강활	경분	금오화	단귀	대항	독활	물약	방풍	백금	백지	역정	연고	연단	유향	적작약	지향	정풍등	지자	행인	혈갈	형개	황금	황기	향남	황련	행백							











강활유동탕	風門	감조	감조	강활	구기자	국화	당귀	독활	두충	미향	만형자	박하	방풍	백작약	백지	생강	생지황	석고	세신	시호	육계	인삼	지각	지골피	지모	진교	창출	천궁	황금	황기
사백단	風門	감조	감조	강활	관향	당귀	당귀	독활	방풍	백하	백출	백출	백출	사인	사향	세신	용뇌	우향	인삼	죽엽	지모	천궁	향부자	지골피	지모	진교	창출	천궁	황금	황기
가미내보탕	風門	감조	감조	강활	당귀	대조	독활	두충	두충	목향	방풍	방풍	방풍	사인	사향	세신	용뇌	우향	인삼	죽엽	지모	천궁	향부자	지골피	지모	진교	창출	천궁	황금	황기
인삼강활산	風門	감조	감조	강활	강경	당귀	만형자	백하	방풍	상백피	생강	인삼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적복령
무향보영단	風門	감조	감조	강활	계피	고본	국화	남성	당귀	독활	두충	만형자	무향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방풍	
점동산	風門	감조	감조	강활	고령강	당귀	미향	방풍	방풍	백출	세신	오수유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유향
방풍탕	風門	감조	감조	강활	방풍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천궁
대강활탕	寒門	감조	감조	강활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정화탕	火門	감조	감조	강활	과무근	강경	대향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승안산회탕	火門	감조	감조	강활	감조	강경	대향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승양익명탕	內傷門	감조	감조	강활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승양보기탕	內傷門	감조	감조	강활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후박환	嘔吐門	감조	감조	강활	계지	강경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신달탕	寒垣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황련소독산	癰疽上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승양익위산	癰疽上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승양익위탕	癰疽上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당귀강활탕	小兒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침향천마탕	腰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독활탕	腰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천궁육계탕	腰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승양보위탕	後陰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강활승습탕	頸項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보양탕	眼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고본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연백익음환	眼門	감조	감조	강활	결명자	당귀	독활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충이탕	耳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당귀	독활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여태동기탕	鼻門	감조	감조	강활	고본	당귀	독활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	방기